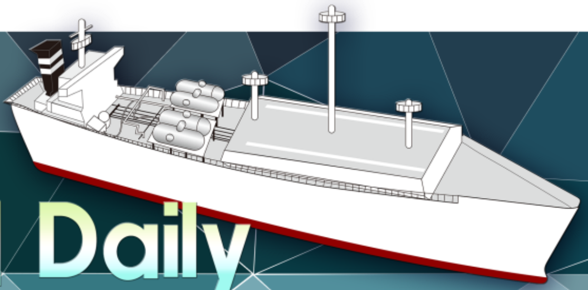
meritz 조선/기계 Daily



2020. 11. 26 (목)

meritz 메리츠증권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중형 LPG선 2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싱가포르 선사로부터 40,000CBM급 LPG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규모는 1,160억원이며 2022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현재 동형 선박에 대한 추가 발주를 협의 중이라고 알려짐.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제주 바람으로 그린수소 만든다

두산중공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그린수소 생산 · 저장 · 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은 수소의 생산, 압축, 저장 등 수소플랜트 전체의 통합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개발 등을 맡게되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 수준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Canada calls for scrubber ban despite IMO 2020 mandate

캐나다 정부가 스크러버(scrubber)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됨. 스크러버를 활용하여 HSFO(고유황유)를 사용하는 것이 LSFO(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것 보다 배기가스 배출 측면에서 낫지 않다며 배경을 설명함. Open, Closed, Hybrid 형에 상관없이 모든 스크러버를 금지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Bulkers and cruiseships lead the way, but scrapping proves limited in 2020

2020년 현재까지 439척의 선박이 폐선소로 향했으며 1,920만DWT에 달한다고 보도됨. 벌크선, 크루즈선들이 주로 폐선 진행되고 있으며 Clakrsons에 따르면 2,600만DWT 규모의 선대가 폐선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전년동기대비 50% 가량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2008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Frontline sees Libyan oil production boosting suezmax tanker market

Frontline은 리비아의 Oil 시장 재진입이 Suezmax 탱커 시장 회복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탱커 수요가 OPEC의 생산 및 CAPEX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지만, Oil 가격 회복과 10월부터 재개된 리비아의 Oil 수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공정위, 국내 조선업체에 '끼워팔기'한 프랑스 GTT 과징금 12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핵심 특허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가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특허를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팔기'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GTT가 국내 조선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힘. (조선비즈)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www.imeritz.com